



묵주기도의 매 단이 끝날 때마다 구원송을 바치는데 이 정체불명의 기도문을 공식전례에서 사용하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정체불명의 기도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구원의 기도’는 성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한 기도문인데 어찌 ‘정체불명’이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구원송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세 어린이들에게 발현한 성모님께서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에 로마 교황청은 1956년 묵주기도 매 단의 신비 끝마다 이 기도를 바치도록 인정하였고 교회의 교리서들이 모두 묵주기도 양식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들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만큼 삶과 죽음과 영생을 향한 복되고 아름다운 청원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인간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이 기도는 하느님 사랑에 철저한 의탁이기에 하느님 사랑을 찬미하는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온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것이 구원송의 주제임을 새기고 성모님의 권고를 헤아리기 바랍니다.

구원송은 온 우주와 생명의 주재자이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는 걸 다시, 일깨워드립니다.

『소곤소곤 아하 그런거군요』, p.56~57,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모함당하는 이의 하소연

(시편 7,2-9)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억울함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 저희가 나누는 작은 사랑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7, 2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 3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 몸 물어 가지도 끌여가지도 말게 하소서.

- 4 주 저의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 5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빈털터리 되게 강탈했다면
- 6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다 짓밟으며
제 명예가 흠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 7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 8 겨레들이 무리 지어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 위 높은 곳에 앉으소서.
- 9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응수하지 않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의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함이란 나쁜 피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모함당하는 이로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상권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인들이 필리스티아인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면서 역사의 무대에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쟁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승리에 열광하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 부르며 다윗을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따라 온다는 속담처럼 다윗은 자신의 공을 시샘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인품을 오늘 읽은 시편 7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함에 직접 응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기름부음 받은 이라는 이유로 그와 맞서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울과는 달리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사울의 뒤를 잇는 정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결백함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도 곧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임을 수행할 때, 주변의 오해로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시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에 휩싸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의 탄원시는 우리가 어찌 처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2,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

- 봉곡동본당 구역분과장 조도수(요셉피나) -

진주성에서 가까운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본당은 로사리오의 모후를 주보로 모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루고 살아가는 아담한 공동체입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할 구역 안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당 맞은편에 서부시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부터 나눔의 집을 운영하여 이 지역의 소외된 이들과 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을 대접합니다.

몇 년 전 모든 신자들이 합심하여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반원 가족이 예수성심상을 기증하셔서 온 공동체가 신부님과 함께 축복식을 가지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성당 입구에 두 팔 벌려서 계신 예수성심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 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 본당은 3개 구역 16개 반으로 나누어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4개 반과 일반 주택 지역 1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자 구성원이 노년층이 많아서 소공동체장도 주로 장년과 노년층이 맡고 있습니다.

작년 대림시기에는 강철현 미카엘 주임신부님의 “능동적 참여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본당사목지침에 따라 소공동체 별로 매일 반원들의 가정을 돌면서 대림초를 밝히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는 동안 서로 친교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기쁘게 성탄을 맞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성탄 축제 때 신자들을 위해 국밥도 준비하며 기쁘게 봉사하였습니다.

소공동체가 본당의 모든 신심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활발히 움직여 나감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기쁘고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